

Mark Jennings 박사, Mark, 강의 3, Mark 1:14-39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마가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마가복음 1:14-39에 대한 세션 3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세 번째 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서문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마가가 매우 짧은 기간에 많은 정보를 제시했지만, 중요한 요소인 복음을 예수, 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로 제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한 것이 그 선포의 시작으로 간주되는 방식입니다 .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은 길을 예비할 자에 대한 성경 구절에 뿌리를 두고 예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성전의 휘장처럼 하늘이 갈라지는 순간이었으며, 마가복음 15장에서 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메시아를 연상시키는 용어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는데, 본문과 즉위 시편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고백, 하나님의 그 선포를 이사야의 종의 언어와 결합하면,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의 혼동이 생기고, 성령의 강림이 생겨서, 성경이 영이 안식할 메시아의 오심과 새로운 방식으로 영이 이 탈출, 새로운 탈출로 도착할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종말론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서론에서 예수의 권위가 존재하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첫 번째 종류의 선포는 예수가 더 강한 자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성취 모티브와 권위 모티브가 합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모든 것을 14절에 아주 빠르게, 아주 간략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마가복음의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14절에서 45절까지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마치면 속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특히 1장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1장을 끝내고 마가복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 첫 번째 제자들의 부름과 선교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시간적으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이 사건을 위치시킨다는 것을 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의 선포가 시작되는 시점이 요한의 목적의 종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가 이 요약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시작했는지 살펴보세요.

예수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 유사점을 보시나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같은 단어, euangelion,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예수에 대해 말한 것과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 일치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래,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좋은 소식 언어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15절에서 우리는 작동적 정의를 얻습니다: 그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언어입니다.

이제 중요한 무언가가 도착했고, 기대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개념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 시대를 기대했던 때가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국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것은 요한 세례자와의 연결고리이며, 그가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왕국이 다가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왕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이 중요한 도래였는가, 무엇이 이번을 이전 시대와 다르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었는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임재, 성취하신 예수님의 임재, 구약 예언의 성취와 함께하신 예수님의 임재, 요한이 지적인 예수님의 임재, 그것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래가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도래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에 대한 이런 종류의 요약 진술에서도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세례자 요한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도래가 고통과 고난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도래가 항상 노래와 장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요한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옆을 걸으셨습니다.

지리적으로 주목하세요. 14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고, 16절에서 갈릴리 바다 옆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방금 말씀드린 요약 진술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곳은 걸어가기에 위험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정치와 항상 우호적인 지역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힌트와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체포 뒤에 숨은 정치와 그 당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조차, 어디서 질문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누가 질문하는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바다를 따라 걷고 있고, 우리는 첫 번째 두 부름을 얻습니다. 여기서 두 형제로 시작하는 제자들의 부름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시몬과 안드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야고보와 요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은 꽤 중요합니다. 이 네 명을 볼 때, 이 두 형제 집단은 핵심 그룹입니다. 하지만, 사실, 공평하게 말하면, 3명 이상이 있는 큰 그룹입니다.

우리는 항상 앤드류에게 미안합니다. 앤드류는 빅4로 뺏히지만, 종종 그는 다른 세 명이 가서 독특하고 멋진 일들을 목격하는 곳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 두 형제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이 위대한 선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고상한 언어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소집하는 평범한 곳에서.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들이 지능이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골뜨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부가 된다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니라 지능 면에서도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데, 저는 너무 자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의 탄생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고 그저 단순한 사람들이었던 사람들과 연관시킵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혼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풀뿌리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강한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때 선포된 분이 광야로 가시고, 교회의 미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겿세마네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의 버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처음 네 가지는 분명히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 쌍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때때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일부가 되라는 부르심이 개별 가족도 고려한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주요 형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몬이 먼저 언급됩니다.

아마도 시몬이 그의 형제 앤드류가 그물을 던지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힌트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으러 보내겠다.

”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리고 18절, ”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 마가복음에서 그가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당신은 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러 번 부르는 순간을 갖지 않습니다.

요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효과적이며 행동을 유발합니다. 또한 믿음, 제자도, 따르는 것에 대한 근육질의 간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기울어지고,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을 압박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을 확증하고, 제자도를 확증하고, 따르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신체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기 위해 뒤에 남겨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신다면, 선생님, 랍비는 제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랍비를 찾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랍비, 선생님,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은 선지자들이 밖으로 나갈 때 하던 일과 훨씬 더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수행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택의 요소가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도권이 있고, 그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군중을 약간 분리할 것이고, 군중은 어느 정도 놀라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19절과 20절에서 매우 유사한 패턴을 봅니다. 그분이 조금 더 가시자,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지체 없이 그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나온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지체 없이, 즉시, 바로 그때, 그 시점에서. 지체 없이, 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고용인들과 하인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그를 따랐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제자들의 컬렉션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는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광경입니다.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같은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하지만 한 그룹은 고용한 사업에서 온 반면,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러니까, 한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부유한 배경에서 온 것입니다. 제베데오가 일꾼을 고용할 수 있었던 고용된 일꾼의 작은 부분을 더하면 무언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유사점은 예수께서 부르셨고, 그들이 즉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강조가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날과도 다른 날, 가버나움에서의 날,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삶의 날, 21절에서 39절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 구절을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데, 마가가 하는 일에 대해 매우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고,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특정 구절에는 이미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회당 구조는 오픈 스피치, 오픈 마이크 나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와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일어나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당신을 알아볼

것이고, 회당의 장로들은 성경에 대한 좋은 해설자, 성경 구절에 대한 좋은 해석자라는 평판이 있는 사람을 알아볼 것이고, 그들에게 와서 읽히는 구절에 대해 말하도록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는 연설을 하도록 초대받으려면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당신이 사용하고 싶은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읽히고, 그런 다음 당신은 두루마리에 대해 논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상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이미 일에서 인정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을 주목하세요.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가 율법의 선생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권위 있는 사람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 대한 우리의 연구 전반에 걸쳐 제자들, 군중들, 반대자들, 세 그룹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른 특성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그들은 서로 섞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그룹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군중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고, 마가복음의 그들의 특성 중 하나는 그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는 일에 놀랐습니다. 놀라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놀라움이 따르고 제자가 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놀랐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권위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주목하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율법의 선생들, 서기관들, 회당은 그들이 권한을 가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의

의미,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들이 분쟁이나 토론을 다루는 곳을 설명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실 때, 무리들,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율법 선생들과 그들의 권위 부족과 비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실제로 가르치는 데 얼마나 권위가 없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과 첫 번째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고, 예수가 나보다 강하다고 선언하는 기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당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예수의 권위인데, 이는 율법의 선생들과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암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미 서로에 대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예수께서 서기관들보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더 권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그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다음 사항을 생각해보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 가르칠 때, 종종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침이나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떤 토론, 어떤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께서 그의 가르침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텍스트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그는 종종 신성한 의도, 구절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로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신성한 관점이지, 여기에 적용되는가, 이게 뭐지, 저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이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신성한 것, 그 신이 가질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에 대해 확신, 담대한 말, 그리고 언어의 정확성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것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악마를 마주치면, 그들은 종종 더럽거나 불순한 장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회당에서 무언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힌트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저 놀라움을 언급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갈릴리 사역의 큰 부분이 될 다음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특징은 엑소시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악마가 울부짖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보통 소리치고 고함칩니다. 마가복음에서 악마들은 보통 소리치고 고함칩니다. 그들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제, 이것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항상 번역하기 어려운 그리스어 관용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지만, 관용어의 의미는 항상 분리입니다. 당신은 한 편에 있고, 나는 다른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what do you want with us? 입니다. us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 안에서 말하는 한 악마입니다. 제정신인 남자보다 더 많이 말하는 악마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니? 그리고 저는 영적 존재, 특히 더러운 영을 다룰 때 복수형과 단수형 복수형이 바뀌는 이유가 드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복수형인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 대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원하는 것은 그가 더 큰 집단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일종의 유령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러 왔니? 이것은 우리가 보게 될 패턴이며, 악마, 예수님의 더러운 영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식은 그들의 파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투는 없고, 위협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식, 권위와 능력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입니다.

당신은 그의 것을 파괴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마가가 사용하거나 신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론적 칭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의 역사적 측면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이것은 일반적인 용법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 결과, 악령은 그 남자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악마들이 해를 끼치고 그들이 있는 곳에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악령은 그 남자를 격렬하게 흔들고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즉각성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어난 일과 악령 퇴치에서 일어난 일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들은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에게서 나가. 그는 즉시 떠났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일어난다 .

여기에는 권위 있는 목소리, 명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가 명령하는 것의 평행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매우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움의 언어.

사람들은 모두 너무 놀라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새로운 가르침이고 권위가 있는 거야. 그는 심지어 악령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은 그에게 복종한다. 그러니 마크가 여기서 이미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우리는 처음 24절, 20절까지는 빠른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극적으로 속도를 늦췄습니다. 우리는 인용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시점, 매우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강력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일, 말하는 일에서 강력합니다. 그는 엑소시즘에서 강력합니다.

때 를 기억한다면 , 예수님께 제시된 첫 번째 상대는 사탄이었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 상대의 연장선상에서

엑소시즘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분명히 밝힌 것은 그것은 실제로 경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특수효과가 나오는 영화를 위해 앞뒤로 싸우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마디, 질책, 그리고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28절에서 그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갈릴리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시, 그들은 놀랐다. 이것은 공개적인 행위였다. 이것은 일어난 공개적인 행위였다.

이 모든 일이 회당에서 일어났으므로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마을에 희망이 찾아왔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당을 떠나자마자, 같은 날,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Simon이 여기에 집이 있거나, 그의 가족이 여기에 집이 있어요. 여기는 기지, 위치예요. Simon의 시어머니는 열이 나서 침대에 누워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같은 시나리오로 돌아왔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존재가 들어옵니다.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끝났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외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께 그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열이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은 사적인 행사인 반면, 엑소시즘은 매우 공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마도 피터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집에서 그의 시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크가 피터와 함께 일한다면, 이것은 그 가능성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네 명, 야고보, 요한, 시몬, 앤드류, 우리가 이야기했던 네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대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엑소시즘을 다루실 때, 그는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오세요.

그가 시몬의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는 열을 꾸짖지 않습니다.

그는 열병에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엑소시즘과 질병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질병, 신체적 질병, 정서적 질병, 정신적 질병이 악마의 소유와 연관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술 자체는 거짓이 아니며 거짓 진술도 아닙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그 차이를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마가와 그의 복음서가 악마의 소유와 질병의 차이를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연민의 행위도 있습니다. 그는 시몬의 장모를 부드럽게 대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만지고,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열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타락, 질병, 죽음, 병의 결과가 무너지는 또 다른 예입니다.

열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마가가 제자들이 따르는 즉시성, 즉 엑소시즘의 즉시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듯이, 이제 우리는 그 여인이 즉시 일어나서 열병의 후유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봉사했습니다.

마가는 그녀가 지금 이 여인이 가진 온전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진 후,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이제 왜 저녁이냐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치유는 매우 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소문이 퍼졌고,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 해석에 따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문 앞에 모였습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또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구별이 있습니다. 그는 치유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별개의 범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당에서 악마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은, 그가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는 이것이 마법의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마법 주문을 외울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 하나가 예수께서 불경하고 악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주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를 통제하려고 할 때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가 누구인지 선언할 때, 그것은 그에게서 그 통제력의 일부를 빼앗아갑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는 자신의 인기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 매우 조심합니다.

그가 갑자기 정치적 선언의 상승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악마의 말도 들어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악마들이 그가 누구인지 선포합니다.

그는 도착한 사람이 틀림없다. 그가 정치적 열광을 억누르려 한다는 것은 내 의심 중 하나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 침묵, 예수가 적극적으로 침묵시키는 일이 유대인 땅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이방인이나 이방인이 운영하는 영토에 있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데 덜 적극적이어서, 그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는 악마들이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는 악마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날의 전개되는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회당에 있고, 그는 놀라움을 설교하고, 권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엑소시즘의 한가운데서, 놀라움.

사적인 치유, 즉각적인 회복. 온 마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순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군중이 오고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5절을 주목하세요. 아주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집을 나가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지고 혼자 있으려고 일어나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신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다시 살펴볼 내용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그를 찾아갔을 정도입니다. 3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매우 공개적인 권능의 과시는 회당에서 있었고, 이 매우 사적인 권능의 과시는 집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마을 전체에서 권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예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그를 찾으러 갔고 그를 발견했을 때,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마크가 강조하는 대화의 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책하는 일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외딴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치유해야 합니다. 그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는 온 모든 군중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문화적 기대는 온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든 예수가 나쁜 결정을 내렸다는 질책이 있습니다.

꾸지람의 힌트일 뿐이야. 하지만 예수는 사라져서는 안 될 일을 했어. 왜? 모두가 널 찾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시몬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이 시몬과 제자들, 시몬과 열두 제자들이, 여러분은 시몬이 동등한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라는 묘사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대변하는 대변인, 대변인,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룹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그것이 전개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시몬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이디어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전개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에 혼란스러워하고, 또한 예수께서 틀렸다고 암시할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으로 가보면, 예수께서 누구인지 선언하고, 그것이 고통과 죽음과 연관되는 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른 곳으로 가자 . 가까운 마을로. 거기서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것이다. 38절에서 흥미로운 게 있지?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대답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반직관적인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그를 다른 곳으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결정으로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마가가 서론에서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인도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예수가 사명을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는 순종적입니다. 그는 이 위대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순종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가장 논리적인 일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모두가 여기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대답은, 네 , 그게 문제예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왜? 그래서 거기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온 것입니다. 이 사역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전파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는 왕국이 왔다고 선포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는 갈릴리 전역을 여행했다 . 이것은 요약된 진술로, 그들의 회당에서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이 날을 특징짓는 세 가지, 즉 설교와 기적의 행위. 왕국이 왔다는 설교. 설교는, 만약 우리가 회당의 과정이 텍스트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이해한다면.

그 아이디어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본문에 대해 논평하셨든, 그는 왕국이 왔다고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파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당에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논평한 본문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태가 가져온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성취를 말씀하셨고, 모든 성경이 어떤 면에서 왕국의 도래와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과

설교를 가지고 있고, 귀신을 몰아내고, 기적적인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21절에서 39절까지 주목하세요.

이 날로 마가는 본질적으로 그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론에서 몇 가지 주제를 소개했고 제자들을 부르심은 일종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 즉 마가가 전하는 이야기는 이 날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체 이야기를 이 하루로 늦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가 복음의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 무엇을 예상해야 할까요? 글썄요, 제 생각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은 이것이 갈등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과 불화를 겪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과 신의 뜻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악마의 세력과 적대적인 싸움을 벌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그것은 제시되었습니다. 당신은 한 쪽에는 예수가 있고, 다른 쪽에는 악마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에 반응했기 때문에 한 쪽에 뭉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 후반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악마와 같은 편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제시하는 방식은 두 그룹이 있고, 예수를 따르지만 효과적으로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강의 전에 마가가 제자들에 대해 가장 가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자들은 일상적으로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마태오와 누가에 비하면 마지막에 회복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날에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군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리를 약간 짜증나게 할 질문은, 군중과 제자들 사이의 구별, 특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다른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동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과 집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많은 사건이 집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움직이는 사역입니다. 그는 순회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한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유대인 땅에서 이방인 영토로 이동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해안을 건너고 긴 길을 걷는 것을 볼 것입니다. 종종 정치적인 이유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제가 우리가 계속 되돌아가야 할 것 중 하나는 이 첫날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측면, 특히 처음 여덟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카버나움에서의 이 첫날을 바탕으로 이해하도록 준비시켰는지에 대해서요.

그가 권위 있게 말하고 부드럽게 대했을 때. 다음 수업에서 마가복음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4-39에 대한 세션 3입니다.